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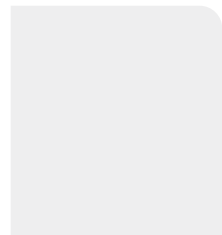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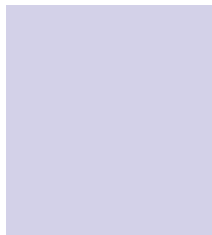
# 조세재정 Brief

K I P F I S S U E P A P E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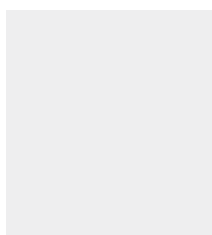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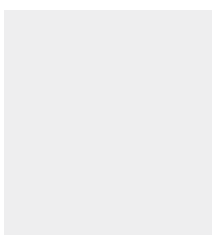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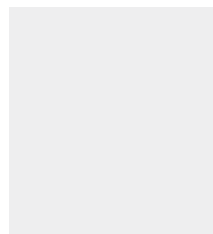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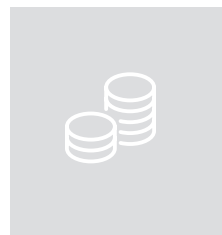
## 플랫폼노무제공자의 현황 및 조세·재정 정책함의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moonkim@kipf.re.kr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bmrkim@kipf.re.kr

- 01** 도입
- 02** 설문조사 개요
- 03**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개인  
특징 및 경제활동 현황
- 04**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정책  
수혜 및 소득신고 현황
- 05** 요약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2022.11.11.  
**No.130**



요약

- 본고는 2021년 하반기 본원에서 자체 조사한 플랫폼공급자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플랫폼노무제공자와 관련된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함의를 제안함
  - 본고에서 ‘플랫폼노무제공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자로서,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함
- 주요 업종 분야별로 다음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 (i)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개인 및 가구의 특징, (ii)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과거 및 가상적인 경제활동 상태, (iii) 플랫폼 생태계의 복잡성, (iv)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수혜 정책 및 가입된 사회보험 범위, (v) 플랫폼노무제공자의 납세의식 및 납세협력비용 등
- 검토결과, 다음의 정책함의를 도출함
  - 업종별 높은 이질성을 보이므로, 개인별 접근이 어렵다면 업종별 정책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소득신고, 납세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성 제도의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자체 조사한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경제활동 실태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해당 설문조사는 플랫폼노무제공자 표본을 다수 확보할 목적으로 (주)자비스앤빌런즈와 MOU를 체결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것임. 본 연구는 (주)자비스앤빌런즈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으며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작성 과정에서도 해당 업체의 개입이나 의견 교환의 과정이 없었음을 밝힘

# 01 도입

-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의 화색 지대에 놓여 있는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노무제공자에 대한 개인, 가구, 일자리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수요도 같이 높아지고 있음<sup>1)</sup>
- 본고에서는 202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 분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플랫폼노무제공자 대상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개인 및 가구 특징, 경제 활동 상태, 정책 수혜 및 사회보험 가입상태, 납세의식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 본 설문조사는 2021년 11~12월에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짧은 기간 내 많은 플랫폼노무제공자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자비스앤빌런즈와 MOU를 체결하여 조사함<sup>2), 3)</sup>
  - 최종적으로 1,850명의 표본을 확보하였고, 1순위 주된 업종이 ‘전세버스기사’에 해당하는 3명의 표본을 제외한 1,847명에 대한 결과를 제시함

1) 본고에서의 ‘플랫폼노무제공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자로서 디지털 특고라는 표현으로도 대체 가능함  
 2) 본 연구는 (주)자비스앤빌런즈의 어떠한 이해관계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는 고객 대상으로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음을 밝힘  
 3) 설문조사는 설문시점 기준 ‘지난 주’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응답자가 답변하도록 설계됨

- 구체적으로는 주요 업종 분야별로 배달 600명, 퀵 서비스 51명, 화물택배 111명, 대리운전 315명,

택시 17명, 바이럴마케팅 155명, 재능자문 432명, 돌봄 155명으로 집계됨<sup>4)</sup>

## 02 설문조사 개요

- 주요 업종은 배달, 퀵서비스, 화물운송·택배·이삿짐, 대리운전, 택시, 바이럴마케팅, 교육레슨·전문상담 분야, 돌봄서비스·홈케어서비스·심부름 등 8가지 분야로 구분함
  - 본고에서는 주요 업종 1순위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였음
  - 설문조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업종구분(분류2)을 제

시하였으나, <표 1>에서 플랫폼 간 유사성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업종구분(분류1)을 제시하고 있음

- 플랫폼노무제공자가 복수의 (보다 세부적인) 업종에서 활동하는 경우라도 <표 1>에 제시된 포괄적 업종에 머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업종별 플랫폼은 <표 1>과 같이 조사됨

표 1 업종별 플랫폼 예시

주요 업종	플랫폼
배달[배달/600]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공유다, 제트콜, 배달캠프, 모아콜, 나눔콜, 베테랑, 배달히어로, 땡땡, 달리고, 영웅배송 스파이더, 런투유, 비온드 딜리버리 등
퀵서비스[퀵서비스/51]	카카오, 티맵, 로지, 통합콜, 손자, 인성, 고고엑스 등
화물운송·택배·이삿짐 [화물택배/111]	쿠팡플렉스, 비빅스, 운수대통, 센디, 통합콜, 카고매니저, 로지, 고고엑스, 다이렉트 콜, 인성, 짐카, 위매치, 한방이사 등
대리운전[대리운전/315]	로지, 손자, 아이콘, 앱대리, 인성, 카카오, 콜마너, 통합콜, 티맵 등
택시[택시/17]	카카오, 마카롱, 나비콜, 반반택시, 타다, 파파, 티머니 온다, 우티(UT) 택시, 리본택시 등
바이럴마케팅[바이럴마케팅/166]	레뷰, 링블, 셀럽리뷰, 파인애플, 미디언스, 재능아지트, 크몽, 아이보스, 숨고, 재능넷
교육레슨, 전문분야 자문 상담 [재능자문/482]	프리모아, 라우드소싱, 크몽, 위시켓, 재능지트, 숨고, 재능넷, 오투잡, 캐스팅엔, 프리모아, 플리토, 와블, 바벨탑, 두둑, 클레슨, 모두의 음악, 탈잉, 파인드 강사, 강사닷컴, 재능마켓, 마인즈랩, 아하커넥츠, 로톡, 다방, 직방,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돌봄서비스 홈케어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가전청소 등 [돌봄가사/155]	미소, 당신의 집사, 청소 연구소, 대리 주부, 홈마스터, 단디헬퍼, 이모넷, 홈스토리, 맘시터, 자란다, 케어닥, 좋은 케어, 시니어시터, 김집사, 도와줘, 위클, 써지니, 땡땡, 숨고

주: [ ] 안의 내용은 업종에 대한 약어 및 표본 건수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4)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에서 바이럴(viral)은 '바이러스의, 감염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는 광고기법을 의미함

# 03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개인 특징 및 경제활동 현황

## 1)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인구학적 특징

- 배달이나 퀵서비스 종사자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각각의 평균 연령은 35.62세, 37.22세), 수도권 거주 확률이 특히 높았으며(72%), 고등교육 진학 확률(31~48%)이 낮은 편임(〈표 2〉 참조)
  - 화물택배 종사자의 수도권 거주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고(58%), 고등교육 진학 확률과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바이럴마케팅과 재능자문 분야 종사자는 고등교육 진학 확률이 타 업종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75~77%)에서는 유사하지만, 바이럴마케팅은 남성비율(22%)과 연령(33세)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바이럴마케팅에는 고학력의 30대 여성 종사자가 많은 반면, 돌봄가사 분야는 40대 미취학 자녀가 존재하는 여성 종사자가 많음

## 2)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소득활동

- 플랫폼을 통한 모든 유형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사했을 때, 주당 근로시간은 10.7~32.3시간이었고, 월소득은 38.9만~152.6만원, 시간당 임금은 0.8만~1.4만원으로 업종별로 상당한 이질성을 보임(〈그림 1〉 참조)
  -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퀵서비스(1.4만원), 재능자문(1.4만원) 업종이었고, 가장 낮은 업종은 바이럴마케팅(0.8만원), 돌봄가사(1.0만원), 택시(1.1만원) 업종이었음

표 2 인구학적 특성

(단위: 세, 비율)

주된 업종	연령	남성 여부	고등교육 진학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가구주 여부	배우자 존재 여부	미취학 자녀 존재 여부	가구소득 <sup>1)</sup>
배달	35.62	0.75	0.48	0.72	0.57	0.38	0.89	4.59
퀵서비스	37.22	0.75	0.31	0.75	0.67	0.41	0.90	4.08
화물택배	37.67	0.74	0.58	0.58	0.64	0.54	0.80	4.95
대리운전	41.76	0.96	0.54	0.61	0.82	0.54	0.85	4.37
택시	47.06	0.76	0.59	0.53	0.82	0.53	0.94	4.82
바이럴마케팅	33.92	0.22	0.75	0.67	0.35	0.42	0.76	4.69
재능자문	41.53	0.47	0.77	0.70	0.62	0.52	0.89	4.91
돌봄가사	46.30	0.22	0.58	0.66	0.40	0.60	0.97	4.72

주: 1) 가구소득은 월단위이며, 다음과 같은 항목변수임(categorical variable)

- |                  |                  |                    |
|------------------|------------------|--------------------|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200만원 미만 | 3: 200만~300만원 미만   |
| 4: 300만~400만원 미만 | 5: 400만~500만원 미만 | 6: 600만~700만원 미만   |
| 7: 700만~800만원 미만 | 8: 800만~900만원 미만 | 9: 900만~1,000만원 미만 |
| 10: 1,000만원 이상   |                  |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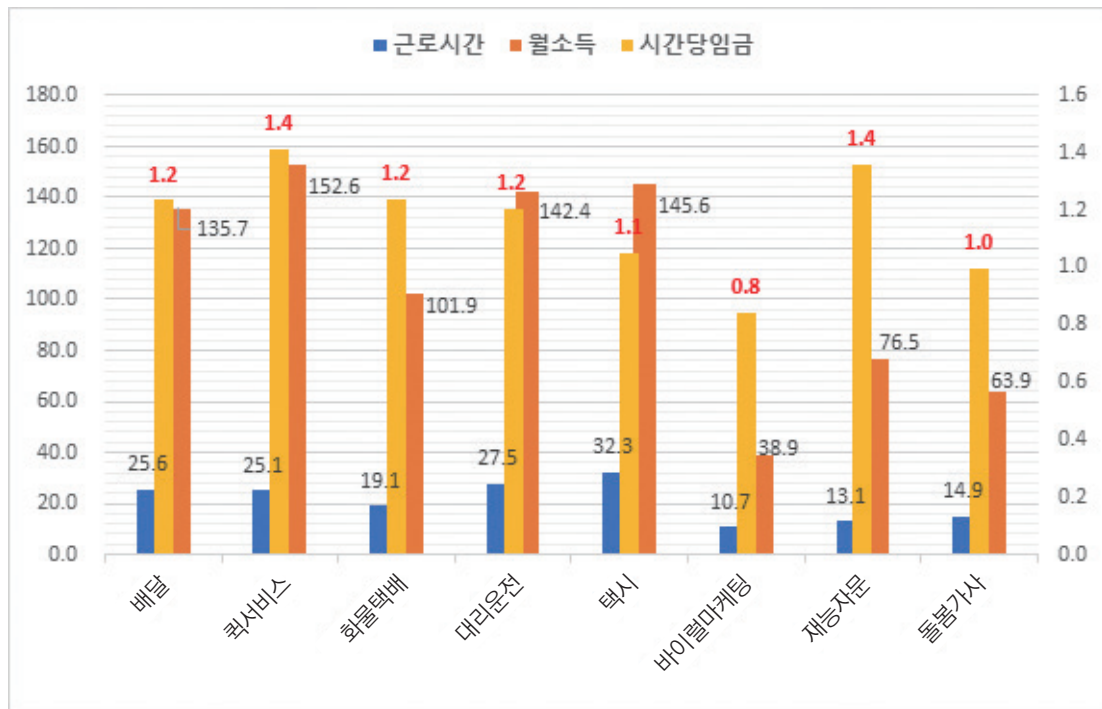
### 3)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경제활동 및 가상의 취업상태

- <표 3>에서는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및 가상의 일자리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패널 (1)에서의 ‘과거 일자리’란 응답시점 기준으로 ‘지난주를 제외한’ 과거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일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그만둔 일자리를 의미함
  - 패널 (2)에서는 응답자가 지난주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함
  - 패널 (3)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가 없었을 경우 응답자가 예상하는 응답자의 가상의 취업형태를 제시함

- 과거의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 임금근로자 일자리 경험률이 높았으며,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로서 활동하지 않았다면 선택했을 일자리 역시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았음(<표 3> 참조)
  - 돌봄가사 분야 종사자(71%)와 화물택배 종사자(67%)의 경우 임금근로자로서 일자리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는 확률이 가장 높았고, 택시 분야 종사자가 35%로 해당 확률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임금 일자리(상용, 임시, 일용)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도 현재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 오프라인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도 6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그림 1 업종별 근로시간, 월소득, 시간당 임금 비교

(단위: 시간, 만원)



주: 1. 파란색 막대그래프는 주당 근로시간, 주황색 막대그래프는 월소득, 노랑색 막대그래프는 시간당 임금을 각각 나타냄. 시간당 임금은 월소득을 (주당 근로시간\*4.3)으로 나누어 계산함  
 2. 전체 설문조사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직을 하였거나 경제활동을 수행한 플랫폼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그래프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 것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3 이전 경제활동 및 가상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비율)

주된 업종	과거 일자리(1)			임금 일자리 보유 여부(2)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부재 시 가상의 취업상태(3)			
	임금 근로자	자영업 종사자	없음		비경황	임금 근로자	자영업 종사자	무급 종사자
배달	0.54	0.07	0.40	0.71	0.20	0.65	0.08	0.08
퀵서비스	0.55	0.06	0.39	0.67	0.18	0.63	0.10	0.10
화물택배	0.67	0.03	0.31	0.73	0.13	0.68	0.08	0.11
대리운전	0.46	0.09	0.45	0.62	0.17	0.71	0.05	0.08
택시	0.35	0.12	0.53	0.82	0.18	0.65	0.18	0.00
바이럴마케팅	0.49	0.04	0.46	0.61	0.27	0.63	0.04	0.06
재능자문	0.57	0.06	0.37	0.69	0.13	0.70	0.10	0.07
돌봄가사	0.71	0.06	0.23	0.76	0.19	0.70	0.06	0.0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04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정책 수혜 및 소득신고 현황

### 1) 지원정책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 여러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수혜율이 높은 정책은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나타났으며, 퀵서비스나 돌봄가사 분야를 제외했을 때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 확률이 40~50%로 높게 나타남(〈표 4〉 참조)
  - 돌봄가사 분야 종사자는 근로장려세제(8%), 실업급여(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8%)의 정책 수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퀵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사회보험 가입률(22~29%)이 가장 낮은 반면, 근로장려세제(24%)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7%) 수혜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음

### 2) 플랫폼에 제출한 개인정보 수준 및 소득신고 현황

- 플랫폼노무제공자들은 휴대폰 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퀵서비스나 재능자문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 제출 확률이 60%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경우는 25% 미만으로 상당히 낮음
- 모든 업종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평균 20% 미만으로 낮았고, 실제로 국세청에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최대 48%(바이럴마케팅) 수준에 머물렀음(〈표 5〉 참조)
  - 단, 법인 소속 택시기사는 근로소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사업소득·기타소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표 4 재정정책 및 사회보험 가입상태

(단위: 비율)

주된 업종	정책 수혜 여부						사회보험 가입상태			
	기초생활 보장급여	근로장려 세제	실업급여	국민취업 지원제도	코로나 정책금융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	국민연금 직장가입	산업재해 보험특고 가입
배달	0.04	0.18	0.21	0.08	0.07	0.14	0.52	0.44	0.40	0.17
퀵서비스	0.06	0.24	0.20	0.06	0.08	0.27	0.29	0.24	0.22	0.10
화물택배	0.05	0.23	0.24	0.06	0.09	0.12	0.59	0.59	0.53	0.04
대리운전	0.06	0.25	0.20	0.07	0.10	0.23	0.48	0.46	0.43	0.02
택시	0.12	0.24	0.18	0.12	0.18	0.12	0.65	0.53	0.53	0.00
바이럴마케팅	0.01	0.11	0.23	0.08	0.12	0.13	0.55	0.56	0.51	0.01
재능자문	0.03	0.14	0.25	0.08	0.07	0.06	0.52	0.49	0.43	0.02
돌봄가사	0.06	0.08	0.19	0.11	0.05	0.08	0.42	0.41	0.29	0.0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5 플랫폼의 신원파악, 지급형태 유형 및 소득신고내용

(단위: 비율)

주된 업종	개인정보 제출	주민등록 번호제출	플랫폼에 의한 지급방식	소득유형: 사업소득	국세청 신고내용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모름, 무신고
배달	0.71	0.39	0.34	0.06	0.17	0.43	0.06	0.11
퀵서비스	0.57	0.24	0.61	0.08	0.16	0.37	0.10	0.14
화물택배	0.75	0.34	0.16	0.10	0.21	0.36	0.07	0.13
대리운전	0.83	0.57	0.55	0.09	0.30	0.40	0.09	0.10
택시	0.65	0.47	0.24	0.12	0.18	0.41	0.06	0.12
바이럴마케팅	0.80	0.29	0.07	0.08	0.34	0.35	0.14	0.09
재능자문	0.59	0.20	0.17	0.16	0.24	0.32	0.10	0.14
돌봄가사	0.71	0.34	0.27	0.05	0.10	0.30	0.10	0.23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05 요약 및 정책함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1)를 기반으로 인 구학적 특징, 경제활동 상태, 정책 수혜 및 사회안전 망 현황, 납세의식 등의 측면으로 업종별 기초통계량 을 검토한 결과 업종별로 다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복수취업 성격) 과반수 이상의 플랫폼노동제공자

- 가 임금일 자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과거 일 자리나 (플랫폼 일 자리가 없는 가상적 환경하에서 의) 가상 일 자리 역시 임금일 자리에 해당될 확률이 높았음
  - (사회안전망) 돌봄 분야나 퀵서비스를 제외한 분야

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 확률이 대체로 40~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쿼서비스 및 돌봄 분야에서 사회안전망 직장가입 확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경우 최하위소득층으로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대부분의 플랫폼노무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소득유형상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소득기반 사회보험) 플랫폼 경제는 N잡러(복수취업자)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현재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와 같은 자격 기반의 사회보험 제도로는 이러한 취업형태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궁극적으로 소득 기반 사회보험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생태계 실태파악) 동일 업종에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며, 플랫폼별 이질성이 상당히 높아서 단일한 플랫폼 정책은 경제 비효율을 낳고 스타트업이나 창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는 플랫폼 경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규모 집단별 실태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공단의 행정자료, 국세청의 소득 과세자료, 기업 공시자료, 민간 빅데이터 자료 등을 연계 및 분석하여

전체 생태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신고의무 및 납세협력비용) 플랫폼노무제공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수준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종합적 정책설계)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과제를 다른 복지성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복수취업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개인 또는 가구소득 수준은 사회보험 가입 확률 및 급여 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근로장려세제의 수혜 확률 및 지원액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플랫폼노무제공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이들 노무제공자의 'N잡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기반 소득과 기존의 전형적 일자리 소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문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플랫폼노무제공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재정지출분석센터 설문조사, 2021.